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유아 이용기관 선택\*

박정미\*\*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이유신\*\*\*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성은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허수연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김한성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 이용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2018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의 만 3~5세 유아 자녀가 있는 1,661가구의 표본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지표로 부와 모의 교육 수준과 취업 여부, 가구소득을 설정하였고, 가구 요인으로 부모의 연령, 자녀의 연령, 가구 내 총 자녀 수, 조부모 동거 여부를, 기관 요인으로는 등·하원 평균 소요시간과 아동의 기관 이용시간 변수를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유아 자녀가 현재 다니는 기관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구분하여 일차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형을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 중 모의 교육 수준과 모의 취업 여부 및 가구소득이 유아 자녀의 이용기관 선택에 유의미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유아, 사회경제적지위, 유아 교육 기회, 기관 선택

---

\* 이 논문은 2022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18R1A5A7059549).

\*\* 주저자, [goforitjen@hanyang.ac.kr](mailto:goforitjen@hanyang.ac.kr)

\*\*\* 교신저자, [shin11@hanyang.ac.kr](mailto:shin11@hanyang.ac.kr)

## I. 서론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은 UN이 2015년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슬로건이다. 이 슬로건 아래 교육 분야(SDG4-교육2030)에서는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표를 포함하였다(이창언, 2022). 생애 초기 교육으로서 영유아 시기의 보육과 교육이 UN의 세계 발전 목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은 역사상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최초였으며, 이는 세계 발전과 변혁에 영유아가 결정적일 수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아동 발달의 경제적 모델은 생애 초기 교육의 투자는 수익률이 높고 이후 투자의 생산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초기 투자가 부족하면 이후에 보완하기가 어렵고 높은 비용이 든다(Cunha et al, 2006)고 하였다. 이처럼 생애 초기 교육의 기회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 이후의 생애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회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한국형 SDGs(K-SDGs)를 수립하여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 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라는 세부 목표를 세웠다(지속가능발전포털, 2023). 우리나라는 이미 2012년부터 만 0세부터 2세 아동의 무상보육과 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듬해에는 만 3세와 4세 아동에게도 누리과정을 적용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8년에는 영아(만 0세~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77.4%로, 유아(만 3세~5세)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은 93.7%로 나타나(사회보장위원회, 2021), 높은 기관 이용률을 보이며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

양적 성장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기관의 질적 수준이다.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 및 교육의 질이 높아야 영유아가 더 많은 발달을 이루고, 질 낮은 서비스의 제공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Gambaro 외, 2014: 1-28). 양질의 기관이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선행연구가 보육 및 유아교육 기관의 질적 수준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영유아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보육 및 유아교육 기관의 질적 수준에 대한 연구들은 기관 이용 이후로 초등학교 1학년(최옥희 외, 2009)과 초등학교 2학년(조하나, 김은정, 2013) 및 초·중등교육 시기(김기현, 신인철, 2012)에 이르기까지 이용한 기관의 종류에 따라 교육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2013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통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실시되고 2019년 누리과정이 개정되며 기관의 경험에 따라 아동의 교육 결과의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윤민중, 2020)는 분석도 있었다. 최근에는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아교사에 초점을 맞추고, 유아교사의 누리과정 인식과 실행에 대한 연구(박종명, 이연승, 2020; 정혜옥, 김지원, 2022; 정지아, 장상옥, 2022; 천연주, 장상옥, 2022)도 활발히 이뤄졌다. 기관 유형에 따라서 유아교사의 누리과정의 인식과 이해도, 실행 및 유아의 경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이 제시되었다. 과거 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

의 질적 수준이 기관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교육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해 보육 및 유아교육 기관에 공통으로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변화를 거쳤다. 그러나, 누리과정이 제도적으로 정착된 이후에도 기관 유형에 따른 질적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유아기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종류는 다양하고, 여러 기관 중 한 기관을 선택하는 문제는 부모의 선택에 의존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기관을 선택해주는 것은 주로 합리적 행위이론으로 설명된다(이진화, 조하나, 2014). 합리적 행위이론은 인간이 특정 행위를 선택할 때, 행위의 결과로 예상되는 수익은 최대로 하고, 비용은 최소로 하려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행위를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김위정, 염유식, 2009).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 수준, 가족 소득 등이 기관 이용과 관련이 있음이 입증되었다(Yesil-Dagli, 2011). 사회계층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교육 수준과 소득 등을 포함한다. 이것을 기관 선택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갈등이론의 관점에서 교육이 지배집단의 가치와 서열화된 기존의 계급구조를 재생산하여(김병욱, 2021)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의 이용기관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면, 이는 결국 부모의 사회계층이 자녀에게 세습되는 수단으로써 교육이 기능하는 것일 수 있기에 그 관계를 밝혀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보육 및 유아교육으로 대표되는 생애 초기 교육의 결과가 고등교육에 비해서 한 개인에게 생애 동안 더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영유아기의 중요성이 최근 더욱 높아졌다(임영신, 최성수, 202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만 3~5세 유아기 자녀의 이용하는 기관 선택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8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중 가구조사와 아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 II. 기존 문헌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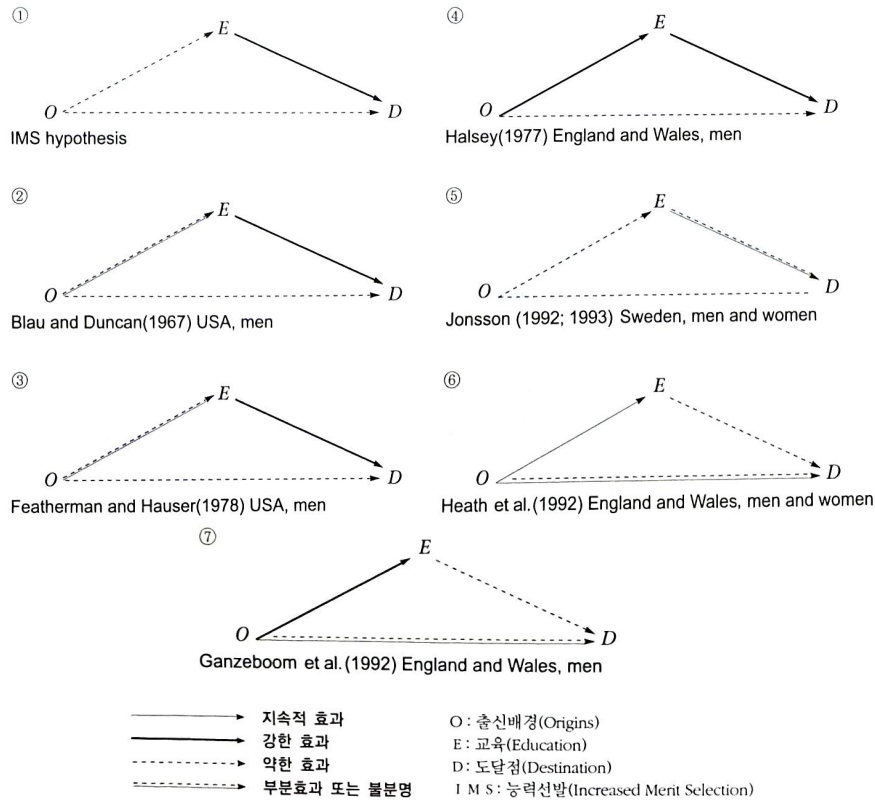
###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의 결과

갈등론적 관점은 교육이 서열화된 사회의 계급구조를 재생산하고 대물림하는 사회구조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김병욱, 2021). 교육기관의 선택은 개인들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집단 간 지위 경쟁의 결과이다. 콜린스(Randall Collins)는 과거에는 사회적 신분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했지만, 현재는 학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현대의 지위 집단은 더 좋은 학력을 위해서 경쟁한다고 설명한다. 경쟁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교육을 통해 자격과 학력을 갖추게 되면서 그 가치가 하락하는 과정을 콜린스는 학력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학력 인플레이션이란 같은 양의 교육을 받아서 과거에는 획득

할 수 있었던 것이 더 이상 획득할 수 없게 되고, 남들과 경쟁하며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과잉교육 현상을 의미한다.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장 취득이 보편화되어 학력이 상향 평준화되고 나면, 각 지위집단은 영유아 시기의 교육으로 눈을 돌려 차별성을 추구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유아교육도 학력 경쟁의 새로운 영역이 된다(김신일, 강대중, 2022). 더 좋은 대학에 가려는 것처럼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의 선택도 더 좋은 기관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쟁으로 볼 수 있다.

교육의 결과가 사회 평등화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를 골드소프(Goldthorpe, 1977; 김신일 외, 2022. 재인용)가 정리한 것을 [그림 1]로 제시하였다. 계층이동에 대한 교육의 효과 경로는 교육과 계층 배경 및 도달계층 간의 관계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④는 교육이 도달계층 결정에 영향을 주고, 동시에 출신 배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우리나라는 ④번 경로와 유사하다는 결과를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김경근, 2020; 여유진, 2008; 조우현, 2004). 구체적으로, 부의 교육 수준이 자녀의 교육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직업 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조우현, 2004). 우리나라는 세대 간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당히 세습되고 있고, 특히 양극단에서 강한 세습이 이뤄졌으며, 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력이 높아진 후에 자녀의 소득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여유진, 2008). 또한, 40대보다 20대에 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 빈곤과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이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여유진, 2008). 고등교육 단계의 교육격차 실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계층 간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은 가정 배경임을 확인하였다(김경근, 2020).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교육이 부모의 계층과 같은 출신배경에 영향을 강하게 받고, 동시에 교육이 도달계층 결정에 영향을 주어 부모와 자녀의 계층을 교육이 연계시키는 경향성이 있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고등교육의 결과에 중점을 두고, 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력과 직업 선택, 경제적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고등교육 외에도 생애 초기 교육은 한 개인에게 생애 동안 더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유아기에 발생한 교육격차는 학령기 이후에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윤민중, 2018). 그로 인해, 최근에는 교육 불평등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영유아기를 더욱 주목하고 있으므로(임영신, 최성수, 2022), 생애 초기 교육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한편, 과거에 비해 현재는 여성의 교육 수준 상승과 맞벌이 가구 증가로 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동등하게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애 초기 교육인 유아기 교육의 관계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1] 계층이동에 대한 교육의 효과 경로 모형

※자료: Goldthorpe(1977); 김신일 외(2022) 재인용.

## 2. 유아 이용기관 선택

### 1) 유아의 이용기관의 종류

보육 및 유아교육 기관의 사회적 경험은 유아에게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취학 후에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구심점이 된다(이순아, 임선아, 2019). 이처럼, 유아기는 아동의 초등학교 전이 시기인 만큼 학교 성공의 민감기(Rimm-Kaufmann, Pianta, 2000)로 불리며, 유아기의 학교 준비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유아가 어느 유형의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학교 준비에 더 효과적인지를 선택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나라에는 유아기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의 종류에 대표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고 이를 설립과 운영 주체에 따라 그 유형을 구분하여 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

린이집으로 나누어진다(법제처, 2023a; 법제처, 2023b).

다수의 선행연구는 유아기 기관 이용의 경험이 이후 교육의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왔다(김경빈, 정혜욱, 2017; 조하나, 김은정, 2013; 윤민중, 2020; 최옥희 외, 2009). 이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초·중등교육 시기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용 경험이 있는 집단 중 유치원의 이용이 효과가 있었고(김기현, 신인철, 2012), 학부모들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위한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학교준비도 형성에 유치원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김경빈, 정혜욱, 2017). 초등학교 1학년(최옥희 외, 2009)과 초등학교 2학년(조하나, 김은정, 2013)의 학업성취도와 학교적응에도 유치원의 경험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 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교육의 질에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최근에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통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시행하게 되면서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아동의 기관 경험에 따라 교육 결과의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다(윤민중, 2020)는 분석도 있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두 유형의 기관의 질적 차이가 발생한 원인으로 기관의 운영적 특성(김은설, 2013)과 물리적 환경(김은영, 2020)의 차이 등이 있다. 김은설(2013)은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육 프로그램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 금액이 적고, 어린이집 보육료에는 12시간 보육료에 급·간식 비용까지 포함되지만, 유치원은 급·간식 비용을 부모에게 따로 청구하는 형태임을 보고하였다.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에서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보육료와 보조금 외에는 추가 수입이 없고, 운영에 지출되는 비용을 모두 정부 지원금에서 충당해야 하므로, 지원되는 보육료가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온전히 보육 활동에만 사용되기 어려웠다. 김은영(2020)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과 설비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교사들은 현재 근무 기관의 물리적 환경 개선점으로 유치원의 경우 ‘실외 놀이터의 확일적 구성’과 ‘성인을 위한 공간 미배정’을 지적하는 반면에,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좁은 교실 및 보육실’로 응답하여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재정적 지원과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편이었고, 이러한 차이가 기관의 유형에 따른 질적 수준의 차이로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

기관의 질적 수준은 곧 유아교사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2013년 누리과정 실시와 2019년 개정 누리과정 실시 이후로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있었다. 유아교사가 누리과정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교육과정 실행의 첫 단계이므로(정혜욱, 김지원, 2022; 조숙영, 이용주, 2022), 유아교사의 누리과정 인식과 실행에 대한 연구(박종명, 이연승, 2020; 정혜욱, 김지원, 2022; 정지아, 장상옥, 2022; 천연주, 장상옥, 2022)가 활발히 이뤄졌다. 그중 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의 놀이실행에 대한 인식이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 교사보다 높다

(박종명, 이연승, 2020)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이와는 상반되게 2019 개정 누리과정 구성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높고(정혜옥, 김지원, 2022), 누리과정 실행 전체(정지아, 장상옥, 2022)와 놀이지원 방법 이해도(천연주, 장상옥, 2022)가 국공립유치원 교사가 민간어린이집 교사보다 높음이 보고되었다. 또한, 누리과정에 대한 유아의 경험도 국공립유치원 유아가 민간어린이집 유아보다 더 많이 경험한다고 인식(천연주, 장상옥, 2022)하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 및 유아교육 기관 모두가 공통된 교육과정으로 누리과정을 실행하고 있지만, 유아교사의 누리과정의 인식과 실행에 있어서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우세하였다. 누리과정이 제도적으로 정착된 최근에도 기관의 유형에 따른 질적 차이가 다양할 수 있는 것이다.

##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유아 자녀의 이용기관 선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유아 자녀의 보육 및 교육기관 선택에 대한 주요 설명 요인이 될 수 있다. 합리적 행위이론은 교육 선택을 서로 다른 계급적 위치를 점하는 행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비용과 수익을 고려한 합리적 행위로 간주한다(김위정, 염유식, 2009). 브린과 골드소프(Breen and Goldthorpe)(1997)는 교육 선택에 있어 계급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교육 선택의 차이를 설명한다. 즉, 모든 계급은 그들의 자녀가 더 높은 사회경제적 위치를 획득할 것을 기대하며,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학력을 보유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김기현, 방하남 2005). 또한 학업성취와 같은 객관적 조건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공을 보장한다는 믿음의 정도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더 강한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로 이어질 수 있다(김위정, 염유식, 2009). 일련의 관점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교육 선택의 차이를 설명하며, 특히 생애 초기 교육에 해당하는 유아기 기관 선택의 문제에도 경제적 자원이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부모나 가구의 특성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선택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업모의 유아교육 기관 선택 요인(이진화, 조하나, 2014)과 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조인경, 이진화, 2017), 소득 계층적 특성이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기관 이용과 선호에 미치는 영향(최혜진, 2018) 등의 분석이 이뤄졌다. 주요 결과로는 취업모가 있는 가구에서 자녀 수가 적을수록, 가구소득이 고소득인 가구보다 중간 소득의 가구에 속할수록, 총생활비 중 사교육비 비율이 높을수록, 모가 정규직에 종사할수록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증가했다(이진화, 조하나, 2014). 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높을수록, 보육비 사용이 높을수록 유치원에 다닐 가능성이 증가했다(조인경, 이진화, 2017). 또한,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한 연구(최혜진, 2018)에서는 소득에 따라 어린이집 유형

별 이용에 차이가 있었으며, 부의 교육 수준, 자녀 연령, 자녀 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했던 자료의 조사 시점이 2012년(이진화, 조하나, 2014)과 2014년(조인경, 이진화, 2017)과 2015년(최혜진, 2018)의 자료였던 만큼 그 이후로도 누리과정의 실행과 제도적 정착과 같은 정책 시행 이후의 변화를 탐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가구소득 외에 생활비 중 사교육비 비율과 보육비 지출 등으로 모두 소득과 관련 있는 변인이 유아의 이용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결과 외에는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주장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소득 외에도 부모의 교육 수준과 부모의 취업 여부와 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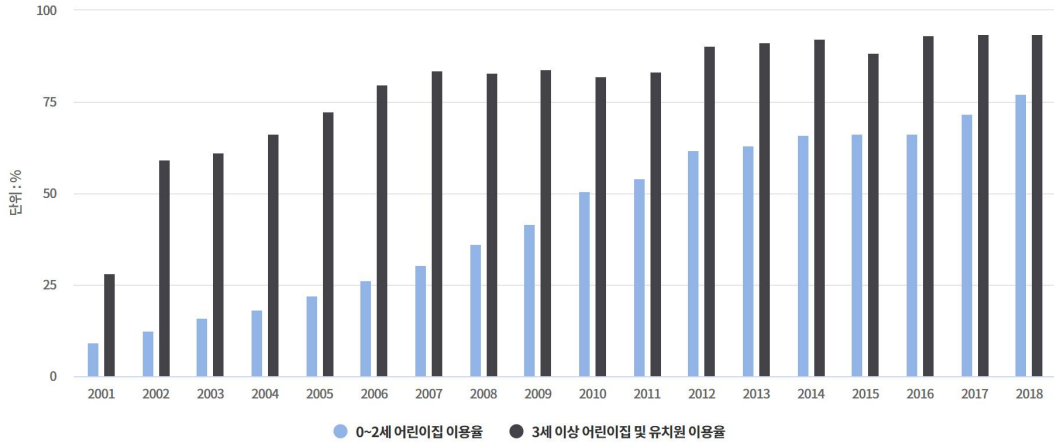
선행연구에서 다뤘던 이용기관 유형의 범위를 분류해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조부모나 육아도우미 등의 개인 대리 양육, 학원, 기관 미이용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어린이집 유형(서소정, 하지영, 2014) 또는 유치원 유형(고현, 정명자, 2012; 김현정, 최인수, 2003; 홍순옥, 최정희, 2007)만을 대상으로 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거나 어린이집과 개인 대리 보육 유형(배성희, 2011), 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학원의 세 가지 유형 중 선택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김지경, 2004; 조인경, 이진화, 2017). 그 밖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인 대리 양육 유형 중 선택 요인을 분석하거나(박선옥, 2011), 학원까지 포함하여 네 가지 유형 중 선택 요인을 분석하였다(안재진, 김은지, 2010). 선행연구의 이용기관 유형 범위를 정리하여 다음의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선행연구의 이용기관 유형 범위 정리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개인 대리 양육	학원	기관 미이용
김현정, 최인수(2003)		●			
김지경(2004)	●	●		●	●
홍순옥, 최정희(2007)		●			
안재진, 김은지(2010)	●	●	●	●	
박선옥(2011)	●	●	●		
배성희(2011)	●		●		
고현, 정명자(2012)		●			
서소정, 하지영(2014)	●				●
이진화, 조하나(2014)	●	●			●
조인경, 이진화(2017)	●	●		●	



우리나라는 2012년 무상보육 정책을 실시하면서 0-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과 3세 이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이 증가했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을 [그림 2]로 나타내었다.



[그림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2001~2018)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2021).

0~2세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1년 54.1%에서 2012년 62.0%, 2018년에는 77.4%까지 상승하였다. 3세 이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또한 2011년 83.2%에서 2012년 90.4%, 2018년 93.7%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0~2세의 영아 시기부터 아동 대부분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3세 이상의 유아 시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한 유형의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만 3세 이상의 유아 93.7%가 이용하는 기관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두 유형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부모가 유아 자녀의 돌봄과 교육을 위해서 보육 및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가구들의 이용기관 선택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하였다.

요약하면, 교육 불평등의 관점에서 선행된 연구들은 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고등교육 성취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부모와 가구의 특성이 유아의 이용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유아 이용기관 및 이용 서비스의 유형을 기관 이용뿐만 아니라 개인 대리 양육이나 학습지 이용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서 독립변수의 뚜렷한 영향력을 확인하기가 모호했다. 또한, 부모와 가구의 특성 중에서도 가구소득을 포함한 소득과 관련된 변수 외에 다른 변인들은 이용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명하게 주장하기가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애 초기 교육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유아 시기의 보육 및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부

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이 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통계적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유아가 이용하는 기관 선택에 차이가 있는가?

### Ⅲ.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중 가구조사 및 아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보육실태조사는 영유아 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실태, 이용 만족도, 요구도 파악 및 보육시설 운영의 전반적 현황 파악을 통하여 중장기 보육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조사이다(보건복지부, 2019: 29). 가구조사 및 아동조사는 2018년 8월에서 10월까지의 기간에 미취학 아동 가구의 주양육자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8년에는 2,533가구와 아동 3,775명의 데이터가 수집되었다(보건복지부, 2019: 50). 본 연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만3~5세 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중, 가구의 구성원 유형이 부모와 유아 자녀로 구성된 1,661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인구통계학적 배경은 다음 <표 2>와 같다.

####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만 3~5세 유아 이용기관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형이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시설로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이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원자료에서 ‘아동의 현재 이용기관’으로 국공립어린이집(1),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2),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3), 민간어린이집(4), 가정어린이집(5), 직장어린이집(6), 협동어린이집(7), 국공립유치원(8), 사립유치원(9), 영어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10)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영어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10)을 제외한 후 일차적으로, 어린이집(0)과 유치원(1)의 이분형 변수로 재범주화하여 이항 로지스틱 연구모형에 투입하였다. 이후 기관의 유형을 국공립과 사립(민간)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다항 로지스틱 연구모형에 투입하였다.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표 2> 분석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N=1,661)

구분	범주	빈도 (%)	구분	범주	빈도 (%)		
부	교육 수준	고졸 이하	459 (27.63)	모	교육 수준	고졸 이하	511 (30.76)
		전문대 졸업	323 (19.45)			전문대 졸업	355 (21.37)
		대학교 졸업	778 (46.84)			대학교 졸업	720 (43.35)
		대학원 졸업	101 ( 6.08)			대학원 졸업	75 ( 4.52)
	취업 여부	미취업	18 ( 1.08)	취업 여부	미취업	756 (45.51)	
		취업	1,643 (98.92)		취업	905 (54.49)	
	가구 내 총 자녀 수	1명	206 (12.40)	자녀 연령	만 3세	579 (34.86)	
		2명	978 (58.88)		만 4세	489 (29.44)	
3명 이상		477 (28.72)	만 5세		593 (35.70)		
현재 이용기관	어린이집	714 (42.99)	조부모 동거 여부	동거 안함	1,474 (88.74)		
	유치원	947 (57.01)		동거함	187 (11.26)		
현재 이용기관 세부 유형	민간·가정 어린이집	385 (23.18)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329 (19.81)					
	국공립 유치원	340 (20.47)					
	사립 유치원	607 (36.54)					
구분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부 연령	1,650	25	70	40.35	4.95		
모 연령	1,658	23	57	36.97	4.32		
월평균 가구소득(만원)	1,652	0	3,000	470.07	227.74		
월평균 가구균등화소득(만원)	1,652	0	1,500	228.08	114.42		
등하원 평균소요시간(분)	1,395	1	60	11.14	6.75		
기관 이용시간(시간)	1,661	3	12	7.38	1.31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유형을 이분하고 있어(조인경, 이진화, 2017) 본 연구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1),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2), 법인·단체등 어린이집(3), 직장어린이집(6)을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으로 분류하고, 민간어린이집(4), 가정어린이집(5)을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분류하였다. 협동어린이집(7)의 이용 빈도는 0으로 나타나 재범주화에 포함하지 않았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자료의 국공립유치원(8)과 사립유치원(9)으로 구분한 기존 분류를 활용하였다.

##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이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지표로는 소득과 교육 수준, 직업 지위 등이 있으며(Hansung and Yushin, 2018), 지표 구성 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직업 지위 지표의 투입 여부에 관한 것이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소득과 교육 수준이 활용되는데 소득은 생애주기나 직업적 단절과 같은 사건에 따라 유동적일 가능성이 있고, 교육 수준은 대체로 20대 중반에 완성되어 고정된 성격을 가져서 평생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소득에 비해 안정적인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김혜진, 구인회, 2009). 이에 반해, 직업 지위는 소득이나 교육 수준과 중복되는 변수로 간주하여(황희봉, 주은선, 2022) 사회경제적 지위를 소득과 교육 수준 지표로만 구성하기도 한다. 둘째,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의 합산에 관한 사항이다. 소득, 교육 수준, 직업 지위와 같은 지표들을 합산하여 사용할 것인지, 기존의 지표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위계적 변인을 새롭게 구성하여 사용할 것인지, 또는 복수의 개별 변수를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장영은, 2015).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 수준과 소득, 취업 여부의 변수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을 위계적 요인으로 설정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각 지표의 개별적인 영향력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부모의 교육 수준은 부와 모 각각 최종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고졸 이하(1), 전문대 졸업(2), 대학교 졸업(3), 대학원 졸업(4)으로 값을 부여하였다. 소득은 월평균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가구 균등화 소득의 연속형 변수로 변환하였다. 부모의 취업 여부는 원자료의 취업(1), 휴직 중(2), 미취업(3)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본 연구에서는 취업 여부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취업(0)과 취업과 휴직 중을 합쳐서 취업(1)으로 재범주화하였다.

##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는 가구요인과 기관요인으로 구분하여 가구요인에는 독립변수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하위 변수들을 제외한 다른 가구의 특성들을 고려하였다. 부모의 연령과 자녀의 연령, 가구 내 총 자녀 수, 조부모 동거 여부 변수로 구성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가구의 특성으로 부모의 학력, 연령, 취업 여부, 가구소득, 자녀 수, 자녀 연령, 가족 형태 등이 있었다(권경미, 2012; 임유

경, 2008; 조인경, 이진화,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을 구성하는 부모의 교육 수준과 부모의 취업 여부, 월평균 가구 균등화 소득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그 이외의 요인들은 가구 요인으로 분류하여 부모의 연령, 자녀의 연령, 가구 내 총 자녀 수를 설정하였고, 가족 형태의 요인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부모 동거 여부의 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의 약 60%가 자녀의 양육을 조부모에게 맡기는 것으로 나타나 조부모 또한 부모만큼 중요한 양육자임(장현진, 2023)을 연구모형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부모의 연령은 부모 각각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였고, 자녀의 연령은 보육 연령(만 나이)을 기준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에서 이용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였다.

기관요인에는 등·하원 평균소요시간과 아동의 기관 이용시간을 고려하였다. 자녀의 유치원을 선택할 때 부모는 집과의 근접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최은영, 황석온, 2014), 기관 이용시간은 영유아 부모의 교육·보육서비스 유형 선택 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최효미 외, 2019)으로 본 연구에서도 통제변수로 구성하였다. 등·하원 평균 소

<표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	현재 이용기관	어린이집=0, 유치원=1	
독립변수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요인	부·모의 교육 수준	부와 모의 최종학력 1=고졸 이하, 2=전문대 졸업, 3=대학교 졸업, 4=대학원 졸업
		부·모의 취업 여부	부와 모의 취업 여부 0=미취업, 1=취업
		월평균 가구 균등화 소득	원자료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가구 균등화 소득으로 변환함.
통제변수	가구 요인	부·모의 연령	부와 모의 만 나이
		자녀의 연령	보육 연령(만 나이)을 기준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이용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만 3세(3), 만 4세(4), 만 5세(5)
	조부모 동거 여부	가구 내 총 자녀수	가구의 총 자녀 수(1~6)
		조부모 동거 여부	조부모의 동거 여부 0=조부모와 동거하지 않음, 1=조부모와 동거함
기관 요인	등·하원 평균소요시간	원자료의 등원 소요 시간과 하원 소요 시간의 평균	
	기관 이용시간	원자료의 기관 이용 시작시각과 기관 이용 종료시각의 차로 기관이용 시간을 산출함.	

요시간은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원자료의 등원 소요시간과 하원 소요시간 자료의 평균을 산출하여 변수로 활용하였고, 아동의 기관 이용시간은 원자료에서 기관 이용시작시각과 기관 이용 종료시각의 차이를 산출하여 변수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표 3>에 정리하였다.

### 3. 분석 방법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중 가구조사와 아동조사의 데이터를 가구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병합한 후, 일차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이용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만 3, 4, 5세 자녀가 있는 가구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그 후, 가구의 구성원 유형을 확인하여 부와 모의 사회경제적지위 요인을 분석할 수 없는 조손가구 8가구와 친인척과 자녀로 구성된 가구 1가구, 위탁가구 2가구 및 한부모가구 88가구의 총 99가구를 제외한 후, 최종분석에 투입된 표본 수는 1,661가구였다. 먼저, 아동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 따라 구분한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일차적으로, 아동의 현재 이용기관이 어린이집인 경우 0, 유치원인 경우를 1로 설정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변수로서, 부·모의 교육 수준과 부·모의 취업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을 독립 변수로, 그밖에 고려할 수 있는 가구요인으로 부·모의 연령과 자녀의 연령, 가구 내 총 자녀 수, 조부모 동거 여부를, 기관요인으로 등·하원 평균소요시간과 기관 이용시간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이항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 적용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비연속적 변수이면서 두 집단 일 경우 활용되는 분석 방법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2가지 항목 중 한 가지를 선택할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n\left(\frac{p}{1-p}\right) = a + b_1X_1 + b_2X_2 + \dots + b_kX_k$$

위 분석모형에서  $\ln\left(\frac{p}{1-p}\right)$  는 아동의 현재 이용기관이 유치원이라고 응답할 확률의 승산치(odds)를 로짓으로 변환한 것이다. 여기에서 승산치는 응답 가구의 아동이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유치원이라고 응답할 확률인  $p$ 와 그렇지 않을 확률인  $1-p$  사이의 비율을 의미한다.  $a$ 는 상수항을 나타내고,  $b_k$ 는 독립변수  $X_k$ 의 회귀계수를 나타낸다. 이것의 의미는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승산치의 로짓이 해당 회귀계수만큼 변화하며, 선행적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홍세희, 2005).

이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유아 이용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 기관의 유형을 국공립 유형과 민간·사립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동이 현재 이용하는 기관의 비율 차이는 다음 <표 4>와 같다.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른 아동의 현재 이용기관 비율은 부와 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부와 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용 비율은 대학교 졸업, 고졸 이하, 전문대 졸업, 대학원 졸업의 순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비율의 차이가 어린이집 이용의 경우, 가장 높은 이용 빈도를 보이는 대학교 졸업과 그다음으로 높은 빈도의 고졸 이하의 비율 차이가 부에서는 약 10.23%, 모에서는 0.56%로 나타난 데 비해, 유치원 이용의 경우, 부에서는 25.98%, 모에서는 21.65%로 상대적으로 큰

<표 4> 아동의 현재 이용기관에 따른 집단별 교차분석 결과 (N=1,661) 단위: 빈도(%)

변인	범주	현재 이용기관		계	$\chi^2$	
		어린이집 (N=714)	유치원 (N=947)			
부	교육 수준	고졸 이하	226 (31.65)	233 (24.60)	459 (27.63)	15.68 **
	전문대 졸업	149 (20.87)	174 (18.37)	323 (19.45)		
	대학교 졸업	299 (41.88)	479 (50.58)	778 (46.84)		
	대학원 졸업	40 ( 5.60)	61 ( 6.44)	101 ( 6.08)		
취업 여부	미취업	8 ( 1.12)	10 ( 1.06)	18 ( 1.08)	0.16	
	취업	706 (98.88)	937 (98.94)	1,643 (98.92)		
모	교육 수준	고졸 이하	257 (35.99)	254 (26.82)	511 (30.76)	27.42 ***
	전문대 졸업	167 (23.39)	188 (19.85)	355 (21.37)		
	대학교 졸업	261 (36.55)	459 (48.47)	720 (43.35)		
	대학원 졸업	29 ( 4.06)	46 ( 4.86)	75 ( 4.52)		
취업 여부	미취업	302 (42.30)	454 (47.94)	756 (45.51)	5.23 *	
	취업	412 (57.70)	493 (52.06)	905 (55.49)		

\*  $p < .05$ , \*\*  $p < .01$ , \*\*\*  $p < .001$

차이를 나타냈다. 부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아동의 현재 이용기관 비율은 모의 경우에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용은 공통적으로 취업모의 비율이 미취업 모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비율의 차이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5.40% 정도였고, 유치원의 경우에는 4.12% 정도로 그 차이가 작게 나타났다.

아동의 현재 이용기관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구분되는 두 집단에서 부모의 연령과 자녀 연령, 가구 내 총 자녀 수, 월평균 가구균등화소득, 등·하원 평균소요시간 및 기관 이용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아동의 현재 이용기관에 따른 집단별 평균 비교 결과 (N=1,661)

변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부 연령	어린이집	708	40.41	5.27	0.37
	유치원	942	40.31	4.70	
모 연령	어린이집	713	36.60	4.46	-3.01 **
	유치원	945	37.25	4.20	
자녀 연령	어린이집	714	3.84	0.84	-7.37 ***
	유치원	947	4.14	0.82	
가구 내 총 자녀 수	어린이집	714	2.29	0.79	3.14 **
	유치원	947	2.17	0.71	
월평균 가구균등화소득	어린이집	711	217.99	105.58	-3.12 **
	유치원	941	235.70	120.17	
등·하원 평균소요시간	어린이집	590	11.36	7.51	1.02
	유치원	805	10.98	6.14	
기관 이용시간	어린이집	714	7.56	1.27	4.81 ***
	유치원	947	7.25	1.33	

\*  $p < .05$ , \*\*  $p < .01$ , \*\*\*  $p < .001$

분석 결과, 모의 연령과 자녀 연령, 가구 내 총 자녀 수, 월평균 가구균등화소득, 기관 이용시간이 이용기관의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집단이 유치원을 이용하는 집단보다 모의 연령과 자녀의 연령 및 월평균 가구균등화소득이 더 낮게 나타났으며, 가구 내 총 자녀 수와 기관 이용시간은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표 6>에 제시



<표 6>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부 교육 수준	1										
2 부 취업 여부	0.00	1									
3 모 교육 수준	0.66***	-0.01	1								
4 모 취업 여부	0.05	0.01	0.12***	1							
5 월평균 가구순등화소득	0.24***	0.10***	0.30***	0.34***	1						
6 부 연령	-0.15***	-0.04	-0.15***	0.02	-0.04	1					
7 모 연령	0.05	-0.02	0.12***	0.06*	0.11***	0.46***	1				
8 자녀 연령	-0.05*	-0.01	-0.02	-0.04	-0.01	0.10***	0.14***	1			
9 가구 내 총 자녀 수	-0.14***	0.00	-0.13***	-0.07**	-0.21***	0.07**	0.03	0.04	1		
10 등·하원 평균 소요시간	-0.04	0.00	-0.04	0.02	-0.03	0.04	0.03	-0.01	0.02	1	
11 기관 이용시간	-0.10***	0.01	-0.07**	0.34***	0.05*	0.00	-0.04	-0.02	0.05	0.04	1

\*  $p < .05$ , \*\*  $p < .01$ , \*\*\*  $p < .001$

하였다. 부 교육 수준은 모 교육 수준과 월평균 가구균등화소득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 연령, 자녀 연령, 가구 내 총 자녀 수와 기관 이용시간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 취업 여부는 월평균 가구균등화소득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모 교육 수준은 모 취업 여부와 월평균 가구균등화소득, 모 연령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의 연령과 가구 내 총 자녀 수, 기관 이용시간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모 취업 여부는 월평균 가구균등화소득과 모 연령, 기관 이용시간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가구 내 총 자녀 수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월평균 가구균등화소득은 모 연령과 기관 이용시간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가구 내 총 자녀 수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 연령은 모 연령과 자녀 연령, 가구 내 총 자녀 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모 연령은 자녀 연령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과 가구요인 및 기관요인이 아동의 현재 이용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2 로그 우도가 1782.06로 나타나고 모형 계수의 총괄 검정 결과  $\chi^2=96.61(p<0.001)$ 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 투입 전 모형과 비교했을 때 -2 로그 우도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변수가 투입되었을 때 모형의 적합도가 개선된 것을 의미한다(김순귀 외, 2012: 92-97).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Nagelkerke의 유사  $R^2$ 은 선형회귀분석의  $R^2$ 과 유사한 개념으로 모형의 설명력 정도를 나타내는데, 모형의 설명력은 약 9%로 나타났다. Hosmer와 Lemeshow 검정은 예측 모형과 실제 모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회귀모형의 유의확률이 약 0.18로 나타나 0.05 이상이 되어 예측 모형과 실제 모형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 중 모의 교육 수준, 모의 취업 여부, 월평균 가구균등화소득과 가구 요인 중 자녀 연령과 가구 내 총 자녀 수, 기관 요인 중 기관 이용 시간은 아동의 현재 이용기관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교육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수록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을 승산이 1.19배 증가하고, 취업모의 자녀는 미취업모의 자녀보다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을 승산이 약 29% 감소한다. 월평균 가구균등화소득이 1만 원 증가할수록 자녀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1.001배 증가한다. 자녀 연령이 1살 증가할수록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을 승산이 1.49배 증가하고, 가구 내 총 자녀 수가 1명 증가할수록 해당 자녀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을 승산이 약 16% 감소한다. 자녀의 기관 이용시간이 1시간 증가할수록 자녀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을 승산은 약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을 구성하는 부와 모의 교육 수준, 부와 모의 취업 여부 및 월평균 가구균등화소득이 주요한 변수다. 상관관계 분

<표 7> 아동의 현재 이용기관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N=1,661)

변인		Coef.	Wald	Exp(B)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	부	교육 수준	0.05	0.40	1.05
		취업 여부	0.08	0.02	1.09
	모	교육 수준	0.18 *	4.31	1.19
		취업 여부	-0.34 *	6.49	0.71
		월평균 가구균등화소득	0.00 *	4.06	1.00
가구요인		부 연령	-0.01	0.76	0.99
		모 연령	0.02	1.75	1.02
		자녀 연령	0.40 ***	34.51	1.49
		가구 내 총 자녀 수	-0.17 *	5.14	0.84
		조부모 동거 여부	0.25	1.77	1.29
기관요인		등·하원 평균소요시간	-0.01	0.57	0.99
		기관 이용 시간	-0.14 **	9.76	0.87
	상수항	-0.75	0.67	0.47	
-2LL = 1782.06					
Nagelkerke's Pseudo R <sup>2</sup> = 0.09					
Hosmer & Lemeshow test $\chi^2=11.35(p=0.18)$					

\*  $p < .05$ , \*\*  $p < .01$ , \*\*\*  $p < .001$

주: 0=어린이집, 1=유치원

석 결과, 주요 변수 간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시, 주요 변수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생성한 후 분석모형에 함께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독립변수 간의 유사성을 의미하는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그 범위가 최소 1.01에서 최대 1.95 정도로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독립변수의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 기관 유형을 세분화하여 국공립·법인·직장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그리고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 중 모 교육 수준, 모 취업 여부, 월평균 가구균등화소득이 아동의 현재 이용기

관 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요인의 경우, 부의 연령, 자녀 연령, 가구 내 총 자녀 수, 조부모 동거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요인의 경우, 등·하원 평균소요시간, 기관 이용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아동의 현재 이용기관 유형과 독립변수 간 관계에 대한 우도비 검증 결과

변인		축소모형의 -2LL	$\chi^2$	df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	부	교육 수준	3449.99	3.84	3
		취업 여부	3446.75	0.60	3
	모	교육 수준	3457.12	10.97 *	3
		취업 여부	3457.07	10.92 *	3
	월평균 가구균등화소득	3487.00	40.85 ***	3	
가구요인	부 연령	3454.91	8.76 *	3	
	모 연령	3449.26	3.11	3	
	자녀 연령	3486.12	39.97 ***	3	
	가구 내 총 자녀 수	3471.72	25.57 ***	3	
	조부모 동거 여부	3459.19	13.05 **	3	
기관요인	등·하원 평균소요시간	3454.24	8.10 *	3	
	기관 이용시간	3472.26	26.11 ***	3	
상수		3446.15	0.00	0	

\*  $p < .05$ , \*\*  $p < .01$ , \*\*\*  $p < .001$

네 가지 기관 유형의 비교 단위(국공립·법인·직장 어린이집 대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대 국공립유치원,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대 사립유치원) 각각에 대한 모수 추정치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분석 시 비교 1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기준범주로 설정하고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을 비교·분석한 모형이고, 비교 2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기준범주로 설정하고 ‘국공립유치원’을 분석한 모형이며, 비교 3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기준범주로 설정하고 ‘사립유치원’을 분석한 모형이다.

첫째,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기준범주로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을 분석한 비교 1의 모형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의 하위 변수 중 모 교육 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요인 중에는 자녀 연령과 가구 내 총 자녀 수, 조부모 동거 여부, 기관 요인 중 기관 이용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표 9>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한 모수 추정치 추정 결과

변인		비교 1 민간·가정어린이집 vs.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비교 2 민간·가정어린이집 vs. 국공립유치원			비교 3 민간·가정어린이집 vs. 사립유치원			
		Coef.	Wald	Exp(B)	Coef.	Wald	Exp(B)	Coef.	Wald	Exp(B)	
		부모의 사회적 지위 요인	부	교육 수준	-0.13	1.18	0.88	-0.10	0.69	0.91	0.07
	부	취업 여부	-0.61	0.50	0.54	-0.35	0.24	0.70	-0.35	0.25	0.70
	모	교육 수준	0.27*	4.62	1.31	0.20	2.64	1.23	0.36**	10.51	1.43
	모	취업 여부	0.17	0.70	1.18	0.19	0.91	1.21	0.55**	9.71	1.73
		월평균 가구 균등화소득	0.00	1.00	1.00	-0.00*	4.06	0.99	0.00***	14.51	1.00
가구 요인		부 연령	0.03	1.98	1.03	0.02	1.15	1.02	-0.03	1.71	0.98
		모 연령	-0.01	0.17	0.99	0.02	0.50	1.02	0.03	1.55	1.03
		자녀 연령	0.21*	4.33	1.24	0.57***	30.86	1.77	0.44***	24.17	1.56
		가구 내 총 자녀 수	0.34***	8.73	1.40	0.19	2.72	1.21	-0.18	2.72	0.84
		조부모 동거 여부	-0.63*	5.06	0.53	-0.87**	10.24	0.42	-0.22	0.62	0.80
기관 요인		등·하원 평균소요시간	0.02	3.42	1.02	-0.01	0.70	0.99	0.01	1.32	1.01
		기관 이용시간	0.25***	12.73	1.28	-0.10	2.09	0.90	0.00	0.00	1.00
		상수항	-4.72***	16.31		-2.45*	4.52		-2.82	7.47	
-2LL = 3446.15											
$\chi^2 = 270.79***$											
Nagelkerke's Pseudo R <sup>2</sup> = 0.191											

\* $p < .05$ , \*\* $p < .01$ , \*\*\* $p < .001$

주: 민간·가정어린이집 기준변수

타났다. 즉, 모의 교육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수록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비해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을 승산이 1.31배 증가한다. 자녀 연령이 1살 증가할수록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비해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을 승산이 1.24배 증가하고, 가구 내 총 자녀 수가 1명 증가할수록,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비해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을 승산이 1.4배 증가한다. 조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때 민

간·가정어린이집에 비해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을 승산이 47% 감소한다. 기관 이용시간이 한 시간 증가할수록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비해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을 승산이 1.28배 증가한다.

둘째,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기준범주로 국공립유치원을 분석한 비교 2의 모형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의 하위 변수 중 월평균 가구균등화소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균등화소득이 1만원 증가할수록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비해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을 승산이 1% 감소한다. 가구요인 중에는 자녀 연령과 조부모 동거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이 1살 증가할수록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비해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을 승산이 1.77배 증가하고, 조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때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비해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을 승산이 58% 감소한다.

셋째,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기준범주로 사립유치원을 분석한 비교 3의 모형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의 하위 변수 중 모의 교육 수준과 취업 여부, 월평균 가구균등화소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교육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을 승산이 1.43배 증가하고, 모가 취업한 상태일 때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을 승산이 1.73배 증가한다. 또한, 가구균등화소득이 1만원 증가할수록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을 승산이 1.001배 증가한다. 가구요인 중에는 자녀 연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이 1살 증가할수록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을 승산이 1.56배 증가한다.

## V.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과 유아가 현재 다니는 기관 선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중 가구조사와 아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이용기관 선택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 변수 중 모의 교육 수준, 모의 취업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의 이용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 중에서도 모의 교육 수준과 취업 여부 등 모의 특성이 부의 특성보다 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이는 주된 양육자인 모가 보육 및 교육의 질적 수준과 환경적 요인들을 중요하게 고려하여(박선옥, 2011) 기관을 선택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의 취업 여부 또한 유아의 이용기관의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기관요인 중 유의미했던 기관 이용시간과 어린이집 입소 순위 등의 기관을 이용하는 수요자의 측면 외에도 모의 취업에 따른 가구의 경제력 상승 등과도 관련지어 다차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먼저, 기관을 이용하는 수요자의 측면에서 보면,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의 1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보건복지부, 2023: 76), 취업 모가 자녀의 등·하원으로 인해 근무 시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긴 운영시간은 취업모에게 일·가정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관 선택의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 중 맞벌이 부모의 자녀는 1순위에 해당하여(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어린이집 입소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모의 취업은 가구의 소득 상승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교육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진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주요 요인일 수 있다. 즉, 모의 취업 변인이 기관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도 모의 취업은 사립유치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 중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용기관의 선택에 차이가 나타나고, 기관의 유형을 구분한 연구모형에서도 사립유치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을 이용하는 비용의 부담과 관련지을 수 있으며, 가구 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어린이집 이용이 증가하는 결과와 함께 고려할 수 있다. 가구에서 유아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형성하는 것이 가구소득이고, 분배하는 것이 가구 내 자녀 수라 간주하면, 가구의 가용자원은 부모의 수입 등으로 형성되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므로 그에 따른 분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한정된 가구소득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부모가 자녀 한 명에게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이용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을 선택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밖에도 앞서 언급했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과 함께 우선 입소가 가능한 대상을 고려해야 하며 가구소득의 영향에 대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치원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은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이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가 보육 서비스보다 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이진화, 조하나, 2014).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치원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은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과업과 함께 설명될 수 있다. 자녀의 연령이 만 3, 4세로 비교적 어릴 때는 돌봄의 성격을 고려한 기관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만 5세가 되어 초등학교 취학 전 준비 시기가 되면 학교 입학 준비 등의 이유로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만 3~5세 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이용기관 선택에 주목한 본 연구 결과와 김병희, 김

정준(2019)의 만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선택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함께 고려해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각 요소가 어느 시기부터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늠해볼 수도 있다. 영아기에는 모의 연령과 소득에 따라서 기관 선택에 차이가 있으나, 모의 학력과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병희, 김정준, 2019). 이것은 본 연구의 가구소득이 유의미한 요인이었던 것과 유사하고, 모의 교육 수준과 취업 여부 또한 유의미한 요인이었던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가구소득은 영아기부터 자녀의 기관 선택에 강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모의 교육 수준과 취업 여부 등의 요인은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넘어가면서 부모가 본격적으로 자녀의 교육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 특히 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유아 이용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것은 생애 초기 교육 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유념해야 하는 것이다.

동등한 생애 초기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현 체계가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가 영유아 보육과 유아교육 분야에서 해결하지 못한 오래된 과제 중 하나가 보육 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 기관인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다. 유보통합의 본질적인 필요성은 생애 초기 교육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유보통합은 대체로 기관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만 논의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은 유보통합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유보통합은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 체계를 뒤엎는 대대적인 변화이다. 이러한 큰 변화가 필요한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변화의 동력이 커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유아의 생애 초기 교육 기회가 제공되는 기관을 선택하는 문제에서부터 부모의 소득과 교육 수준, 취업 여부와 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계층화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유보통합 정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Esping-Andersen(2008)은 최적의 인적자본 정책이 되기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첫째,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부모의 불균등한 능력과 둘째, 모의 취업이 아동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 셋째,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의 잠재적인 이익을 제시하였다. 유보통합 정책 또한 가구소득과 부모의 교육 수준, 취업 여부 등과 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영유아 자녀에 대한 투자로서 자녀의 이용기관 유형에 차이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교육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는 방향에서 접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가구소득과 취업 여부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기관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은 정부의 지원금을 제한 후 그 차액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되는 가구의 자녀와 그렇지 못한 가구의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의 원인은 유아 자녀의 보육 및 유아교육 비용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보통합정책 논의 시,



적정한 표준보육비용 및 교육비용을 산정하여 가구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연구모형의 종속변수에 보육 및 유아교육 기관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국공립과 민간 또는 사립의 네 가지 유형(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여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기준변수로 하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기준변수로 하여, 국공립·법인·직장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형을 비교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아동이 유아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구분하는 대분류 범주일 뿐이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각 범주 내에서 설립유형과 운영 주체에 따라 다시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유치원 또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기관이 있고, 같은 유형의 기관에서도 운영구조(재정, 규모 등)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 구분에 따른 보육 및 교육의 질적 수준의 차이보다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각의 유형 내에서 설립유형별로 질적 수준의 차이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유보통합을 앞둔 사회적 배경 속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유보통합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파악해보고자 함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형을 단순화하여 분석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기관의 다양성을 세밀하게 고려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데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 대상을 고려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양육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맞벌이 가구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다자녀 가구,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자녀들이 우선 입소 대상이 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어린이집 입소 대상 순위 설정과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모형 구성 시,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다자녀 여부 등을 통제한 후 분석하였고, 그런데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 자녀의 이용기관의 선택에 주요한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셋째, 부모 외에 다른 인적자본의 투입 가능성을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 변수를 설정하여 주 양육자인 부모 외에도 조부모와 같은 보조양육자가 아동의 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반영해보고자 하였다. 부모 이외의 다른 보조양육자를 고려한다면, 아동이 기관을 이용할 때 등·하원

소요 시간이나 집과 기관 사이의 거리 등과 같은 시·공간적 제약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으므로 이용기관의 선택지가 더욱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인척이나 비혈연의 대리 돌봄 등의 다양한 보호자 유형을 고려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대리 돌봄은 대체로 부모가 그 비용을 치르기 때문에 연구모형의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에 간접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을 진행한 측면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 외의 다양한 유형의 보조양육자와 같은 인적자본을 고려한 엄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하겠다.

#### [참고문헌]

- 고 현, 정명자. 2012.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 선택 결정요인 모형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3), 99-121.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61397&chrClsCd=010202>
- 권경미. 2012. “어머니의 어린이집 선택 고려 요인과 만족도와의 관계”.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6(3), 27-51.
- 김경근. 2020. “변화의 시대를 맞이한 한국 고등교육의 주요 과제 및 대안”. 『교육사회학연구』, 30(4), 1-32.
- 김경빈, 정혜욱. 2017. “취학 전 유아의 기관 유형에 따른 초등학교 입학 준비 현황과 학교 준비도에 대한 부모의 인식 차이”. 『교육과학연구』, 48(4), 1-19.
- 김기현, 신인철. 2012. “유아교육 및 보육 경험의 장기 효과”. 『한국사회학』, 46(5), 259-288.
- 김기현, 방하남. 2005. “고등교육 진학에 있어 가족배경의 영향과 성별 격차: 한국과 일본의 경우”. 『한국사회학』, 39(5), 119-151.
- 김병욱. 2021. 『교육사회학』. 서울: 학지사.
- 김병희, 김정준. 2019. “어머니의 영아 어린이집 선택요인과 이용만족도”. 『영유아교육-이론과 실천』, 4(1), 77-102.
- 김순귀, 정동빈, 박영술. 2012. 『SPSS를 활용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이해와 응용』. 서울: 나래출판사.
- 김신일, 강대중. 2022. 『교육사회학』. 경기도: 교육과학사.
- 김은설. 2013. 『유치원-어린이집 재정 지원 비교 분석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 2020.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위정, 염유식. 2009. “계급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에 관한 연구: 합리적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43(5), 30-61.
- 김지경. 2004.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 기관 이용과 기관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HER(Human Ecology Research)』, 42(8), 65-76.
- 김현정, 최인수. 2003.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 선택사유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6, 99-117.
- 김혜진, 구인희. 2009.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 540-565.
- 박선욱. 2011. “보육서비스 유형 선택과 비용의 결정요인”. 『한국생활과학회지』, 20(4), 831-847.
- 박종명, 이연승. 2020.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실행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한국유아교육연구』, 22(4), 26-45.
- 법제처. 2023a.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집의 개념 및 종류”. Retrieved from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6&cfNo=2&cciNo=1&cnpClsNo=1&search\\_put=](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6&cfNo=2&cciNo=1&cnpClsNo=1&search_put=)
- 법제처. 2023b.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치원의 개념 및 종류”. Retrieved from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1&ccfNo=2&cciNo=1&cnpClsNo=1&search\\_put=%EC%9C%A0%EC%B9%98%EC%9B%90](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1&ccfNo=2&cciNo=1&cnpClsNo=1&search_put=%EC%9C%A0%EC%B9%98%EC%9B%90)
- 배성희. 2011. “취업모의 영아보육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생활과학연구논총』, 15(2), 21-29.
- 보건복지부. 2019. 『보육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세종: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3. 『보육사업 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위원회. 2021. “사회보장통계: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률”. Retrieved from <https://www.ssc.go.kr/home/kor/social-indicators/view.do?menuPos=47>
- 서소정, 하지영. 2014.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어린이집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2), 319-335.
- 안재진, 김은지. 2010. “미취학아동 가족의 보육·교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연구』, 5-36.
- 여유진. 2008.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8(2), 53-80.
- 윤민중. 2018. “생애 초기 교육 격차: 만 3세 유아의 어휘력과 학습 태도가 아동의 언어 발달 및 학업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6(4), 317-342.
- 윤민중. 2020. “유치원과 어린이집 효과 분석: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험이 아동의 인지 발달

- 과 학업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21(1), 1-20.
- 이순아, 임선아. 2019.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학교준비도와 사회적 기술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30(1), 221-233.
- 이진화, 조하나. 2014. “유아기 미취학 자녀 취업모의 개인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유아교육기관 선택요인분석”.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2), 59-82.
- 이창언. 2022. 『SDGs 교과서』. 서울: 선인.
- 임영신, 최성수. 2022. “불평등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 초기 아동기 인지능력 발달에서 나타나는 가족배경 격차 추세”. 『한국사회학』, 56(2), 1-44.
- 임유경. 2008. “영유아 보육시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연구”. 국내박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대학원.
- 장영은. 201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및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6(6), 1-21.
- 장현진. 2023. “영유아기 손자녀를 둔 공동양육 조부모 관련 연구동향: 2005~2022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141, 85-110.
- 정지아, 장상욱. 2022. “유아교사의 특성에 따른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실태”. 『인문사회 21』, 13(4), 1009-1024.
- 정혜욱, 김지원. 2022.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5세 학급 유아교사의 인식”. 『육아지원 연구』, 17(1), 95-118.
- 천연주, 장상욱. 2022. “교사 특성에 따른 2019 개정 누리과정 교육내용에 대한 유아교사의 놀이지원방법 이해도 및 유아의 교육내용 경험 정도 분석”. 『인문사회 21』, 13(3), 1827-1841.
- 조숙영, 이용주. 2022.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이 교육과정 실행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3(4), 2915-2928.
- 조우현. 2004. “아버지 학력과 노동시장 불평등”. 『노동경제논집』, 27(2), 67-89.
- 조인경, 이진화. 2017. “가구의 일반적 특성 및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과 결정요인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102, 97-120.
- 조하나, 김은정. 2013. “취학 전 기관 경험에 따른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학업성취 만족도 및 정서문제”. 『육아지원연구』, 8(1), 187-209.
- 지속가능발전포털. 2023.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Retrieved from <https://ncsd.go.kr/ksdgs?content=3#ksdgs4>
- 최옥희, 김영호, 김용미. 2009.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취학 전 교육 경험에 따른 학교적응, 학업 성취의 차이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18(4), 261-276.
- 최은영, 황성운. 2014. 『공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기관 선택 이유 및 만족도 분석』, 육아지원

- 연구, 9(1), 151-175.
- 최효미, 김길숙, 김태우. 2019. “영유아가정 부모의 교육·보육서비스 선택 및 이용비용 결정 요인”. 『교육논총』, 39(2), 21-47.
- 최혜진. 2018.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주체에 대한 선택과 선호: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8, 553-566.
- 홍세희. 2005.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 홍순옥, 최정희. 2007. “어머니 배경 변인에 따른 유치원 선택 요인”. 『아동학회지』, 28(4), 51-71.
- 황희봉, 주은선. 202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모지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2), 165-192.
- Breen, R. and J. H. Goldthorpe. 1997. “Explaining Education Differentials: Towards a Formal Rational Action Theory.” *Rationality and Society*, 9, 275-305.
- Cunha, F., Heckman, J. J., Lochner, L., and Masterov, D. V.. 2006. *Interpreting the Evidence on Life Cycle Skill Formation*. 697-812. in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Education, edited by Hanushek E. and Welch F. Amsterdam: Elsevier.
- Esping-Andersen, G.. 2008. “Childhood investments and skill formation”.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5, 19-44.
- Gambara, L. and Stewart, K. 2014. *An equal start?: Providing quality early education and care for disadvantaged children*. University of Bristol: Policy Press.
- Hansung K. and Yushin L. 2018. “Socioeconomic status, perceived inequality of opportunity, and attitudes toward redistribution”. *The Social Science Journal*, 55(3), 300-312.
- Rimm-Kaufman S. E. and Pianta R. C.. 2000.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A Theoretical Framework to Guide Empirical Research”.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1(5), 491-511.
- Yesil-Dagli, U. 2011. “Center-based childcare use by Hispanic families: Reasons and predictor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7), 1298-1308.

Abstract

##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SES) and Selection of Early Child Education and Care(ECEC) Institution**

Park, Jeongmi (Doctoral Student, Hanyang University)

Lee, Yushin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Oh, Seongeun (Doctoral Student, Hanyang University)

Huh, Sooyeon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Kim, Hansung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on the selec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A fin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 sample of 1,661 households with children aged 3 to 5 years from the 2018 National Childcare Status Survey.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d indicators of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education levels, employment status, and household income. Household factors encompassed parents' age, children's age, the total number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and grandparents' co-residence. Institutional factors included variables such as the average commuting time to the institution and the children's attendance hours.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initially conducted for a binary dependent variable that indicated the type of institution that children attended: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The types of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were further grouped into four categories: public daycare centers (including corporate-sponsored and company-sponsored types), private daycare centers (including home-based types), public kindergartens, and private kindergarten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was employed for this four-category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confirmed that factors within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particularly mothers' education levels, employment status, and household incom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selec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for children. Drawing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Key words* : SES, ECEC, Early educational opportunities, Early child, Selection of Institution

(논문접수일: 23.06.29 / 심사일: 23.07.13 / 게재확정일: 23.08.19)